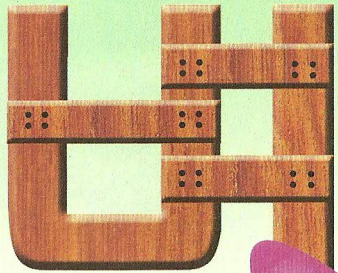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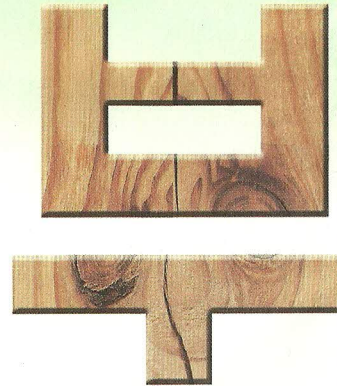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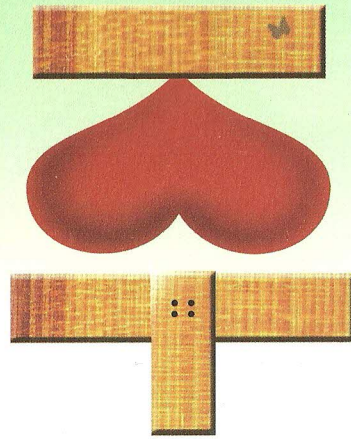
2009 여름마당춤판

부산시립무용단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안무 구성 **홍기태**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특별출연 :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신문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무료

·대본·연출: 황해순 ·음악: 옥준, 서상환 ·음향: 알파 사운드 ·조명: 현라이팅 ·디자인: 정준규
·훈련지도: 이윤혜 기획: 박시영 홍보: 김태훈 소품: 안정숙



2009. 7. **23.(목)~24.(금)** 20:00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
(우천 시 대극장)

2009. 7. **25(토)** 20:00
동래문화회관 야외무대
(우천 시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3100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 2 www.koreanfolkdance.com



안무·구성 **홍기태**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
- (사)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춤 위원회 이사
-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출강, 박사과정
- 조선대학교 무용학과 겸임 교수 역임
- 1986. 부산아시아계급 폐회식 문화 행사 지도위원 역임
- 1997.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 "성화 불당감" 보조 안무
- 2008. 세계사회체육대회 개막식 총안무



간을 뺏으려는 자라와 지키려는 토끼의 두뇌싸움

용왕의 병이 깊어 토끼의 생각을 처방받자 자라(별주부)가 나선다. 육지로 나온 자라는 토끼에게 용궁의 럭셔리함을 강조하며 유혹한다. 귀 얇은 토끼는 자라 등에 업혀 수궁으로 들어가나 간을 내어놓으라는 말에 간을 집에 두고 왔노라 꾀를 낸다. 토끼의 꾀에 넘어가 육지까지 에스코트했던 자라는 토끼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며, 그 자신의 아둔함에 허탈해하고 용왕은 병들어 죽고 만다.

작품구성

첫 번째 용궁장면

- 1장. 용왕의 주색잡기
- 2장. 토끼화상 그리기 대회
- 3장. 길 떠나는 자라

두 번째 육지장면

- 1장. 동물들의 나라
- 2장. 자라와 토끼의 춤
- 3장. 용궁가는 장면

세 번째 용궁장면

- 1장. 용궁으로 간 토끼
- 2장. 토끼의 변명
- 3장. 용궁연회

네 번째 육지장면

- 1장. 사라져 버린 토끼
- 2장. 자라의 슬픔
- 3장. 모족환영회와 용왕의 상여

주요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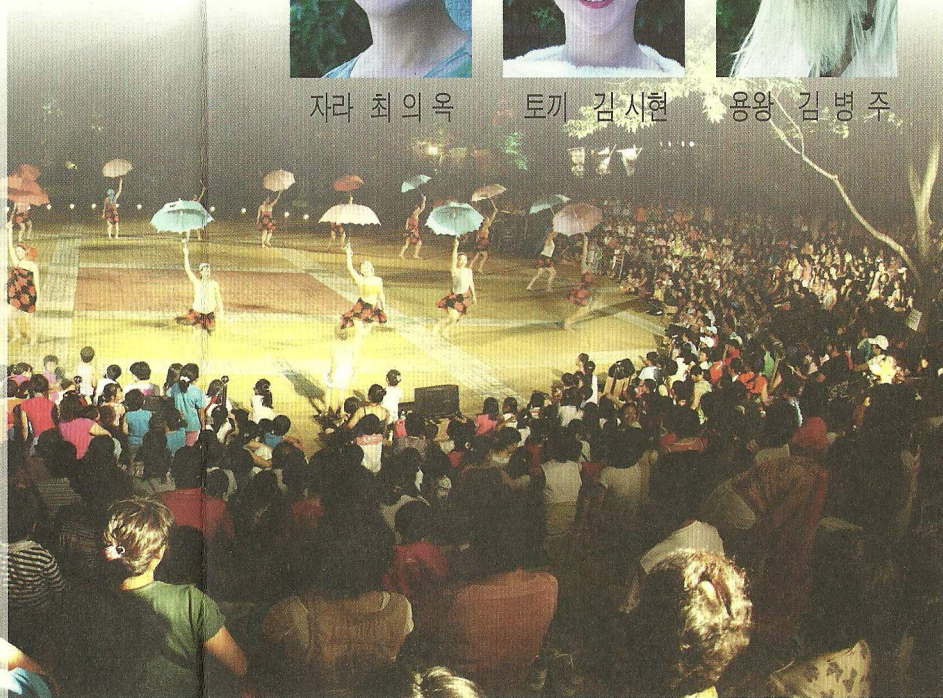
자라 최의옥



토끼 김시현



용왕 김병주



제 32기 시민무용교실 제 21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

2009. 7. 27(월)~31(금) 10:00~17: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009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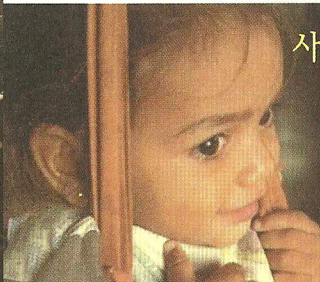
2009. 8. 21(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최의옥 - 「처용...가면을 벗다」 정진희 - 「각」 강모세 - 「그 꽃」

제61회 정기공연 유랑(流浪)-NOMAD

안무·구성 **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2009. 11. 12(목)~13(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607-3131~3132

이 공연은 어린이 구호를 실천하는 **유니세프**를 후원합니다.
공연과 함께 유니세프 사진전시회도 보시고
자율모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세요.
모든 수익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액 전달되어
굶주리고 병든 아동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합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아이들

우리에게도 옛날이 있었습니다.
동구 밖까지 내달리던 허기로 지쳐 쓰러지던 옛날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면 하늘 끝까지라도 뛰어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려서 내손을 잡아 올린 이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내가 오늘 일으켜 세우는 아이는 훗날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니세프는 어린이를 도와주는 유엔기구로 전세계 158개 나라와 지역에서 어린이를 위해 영양과 보건, 식수공급, 기초교육,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 보호 등의 기본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에 따라 국적과 인종, 이념, 성별, 종교 등과 관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구호의 손길을 전합니다.



유니세프를 통해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세요!
전화 080-733-7879, 팩스 02-723-8219, Email psri@unicef.or.kr로 연락하시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